전남' 장성사랑의집 '건설

김 창 남 남영건설 회장

"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이익 남겨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터 "

최근 건설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다하기위해사회공헌활동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지난해에는건설산업을둘러싼경영환경이어려웠음에도불구하고 건설기업들이 순이익의 약 5%를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산업만의장점을 살려 주거 및 복지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해주는활동들이두드러지고있다.

무주택 독거 노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범 건설업계가 전남 장성에 짓고 있는' 장성 사랑의 집 은 건설업사회공헌활동을단적으로보여주는 사업이다.' 장성 사랑의 집 은 용인에 이은 2호 ' 사랑의 집 으로, 장성군이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건설업계가 자금을 지원해 독거 노인용 공동주택을 건립한 후 장성군에기부채납하게된다. 38가구독거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장성 사랑의 집은 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남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인 김창남 남영건설회장은" 사업의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 " 고말했다. 이어 그는 장성사랑의 집 주변에 장성보건의료원, 장성병원, 노인병원 등의의료시설이인접해있어내년2월준공되면 이곳이 독거 노인들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로 자리잡게될것이라고설명하였다.

장성사랑의집을건설하는데는 25억원이 투입된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군침이 도는 사업이다. 하지만 학교 BTL 사업에서 전국 1, 2위를 다투는 등 올 수주액이 1조원을크게넘는남영건설에게장성사랑의집은그다지비중있는사업은아니다.

" 건설협회로부터 공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받고처음에많이망설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현장을 갖고 있어 여력이 없는데다 사업성도 예산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노인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보금자리를 지어 드린다는 생각으로 협력업체를 설득하여참여하게되었습니다. "

김창남 회장을 비롯한 남영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은 창업 이후 11년만에 시공능력 평가액순위에서 243위로도약한것만큼이나 활기차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직원들이 스스로 적립한 돈에 회사가 일정액을 보태는 이른바 매칭 그랜트 방식을 이용해 매년 사회에 일정 기금을 환원하고 있다. 매년 연말 장학재단 출연 및 별도의 기부금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대에 교수들이 사랑방과 쉼터로 활용하는 휴게공간을기증하기도하였다.

" 회사 이름을 알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직원들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노력이사회 구성원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바라는것이지요. "

현재 건설협회 전남서부권역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남 회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설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설기업들이 지금의난국을헤쳐 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 너도나도 이미 뛰어든 사업은 경쟁률이 높고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레드오션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뛰어들지 않는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고수익을올릴 수있는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될 것입니다. 혁신적인사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치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회사는 불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있습니다. '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